



전문용역업체의 육성·활용 긴요

1. 서론

우리민족의 옹비의 대제 전인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불과 6개월여를 남겨놓은 우리로서는 많은 국내·외인들이 드나들게 될 호텔 및 대형백화점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망될 뿐만 아니라, 근래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소위 레저 산업의 발달로 관광과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광진흥책으로 특히 외국 관광객들을 더욱 많이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한편 방재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참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호텔과 백화점의 이용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생활습성



윤 원 중

〈본협회 점검 1부장〉

이 판이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유락기분에 젖어 방재 등 안전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규모의 대형화와 각종 시설의 고급화 추세에다 커피숍, 식당, 나이트클럽 등 화기를 취급하는 업종도 다양하며 각종 전기 제품, 가연성액체가스 등 발화 및 인화성이 강한 물품들을 사용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화재 발

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다.

최근에 인명피해를 많이 낸 국내외 대형 화재들이 거의 숙박 또는 위락시설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 협회에서는 지난 '86. 1월부터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호텔, 백화점(연면적 10,000m²이상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시켜 계속 실시하고 있는 바,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대비 지금까지의 점검결과를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 발전시켜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라는 큰 목표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점검 현황 실태

가. 점검의 구분 및 안전 관계

법규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은 대체

로 소유주에 의한 자체점검, 한국 화재보험협회에 의한 전문기관점검과 소방서에 의한 행정기관 점

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점검의 특성 등을 비교하면(도표 1)과 같다

〈도표 1〉 점검의 비교

| 점검기관 항목 | 자체(소유주) | 전문기관(화협) | 행정기관(소방서) |
|---------|---|---|--|
|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자체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외국기술수준 • 보험기술수준 | • 관계법규 |
| 점검대상 | • 자체소유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물(7 대도시) • 일부비특수건물(주요공장) | • 소방대상물(전국) |
| 회수 | • 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7 대도시 특수건물) | • 연 2회 이상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시설 정밀점검 • 관련부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시설 정밀점검 • 기업위험관리 대책 | • 법정 대상 시설 점검 |
| 결과조치 | • 자체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주, 행정관서에 통보 | • 시정명령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안전기준 작성 능력 미흡 • 제한된 기술인력으로 정밀점검 능력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점검지도 차원 점검 • 주요설비 정밀 기능 검사 • 기업 위험관리 대책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차원의 확인 검사 |

점검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 계법규중 건축법을 보면 호텔의 경우 방화구획(용도별, 층별, 면적별), 경계벽, 내장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등이, 백화점 및 시장의 경우 방화구획(층별, 면적별), 내장재, 피난계단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방법규에 있어서는 호텔, 백화점 다같이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 기구, 방염처리 등이 중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의 안전 관계 법규는 인명안전 및 보험단체 등의 세부 안전기준을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부, 자율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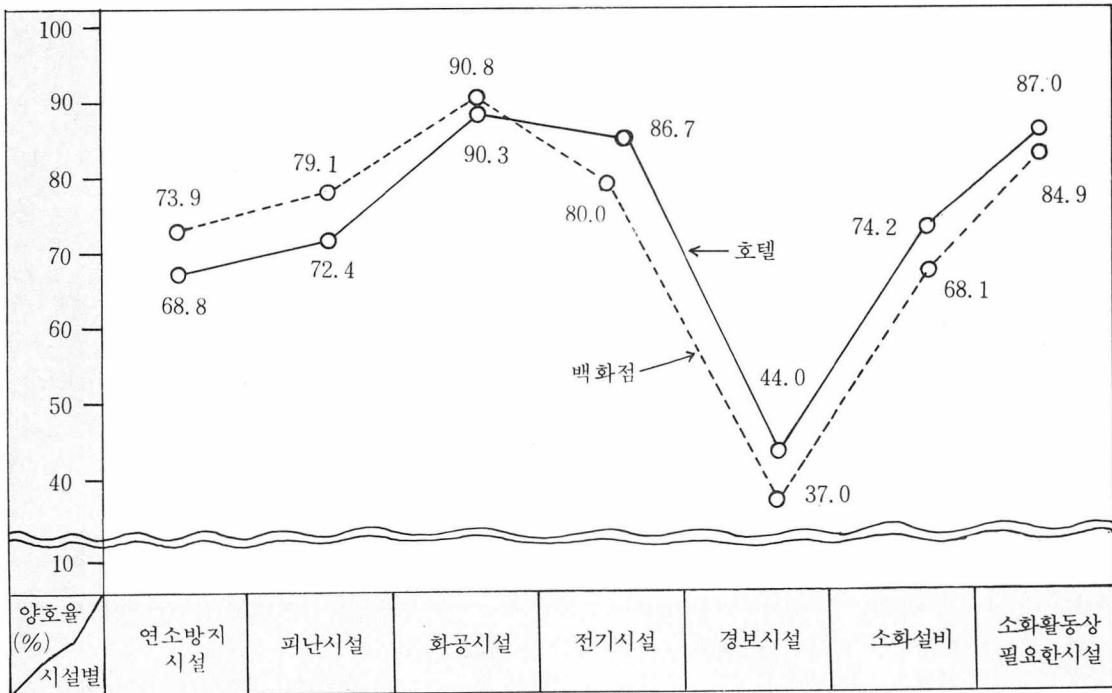
나. 점검내용 및 검사결과

주요시설 양호율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점검중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도표 2〉 호텔, 백화점 점검결과 주요시설 양호율

('86. 화협 안전점검 결과 분석 자료)



안전점검은 각종 안전관계 기준에 따른 적법여부, 시설상태, 성능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으로는 연소방지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과 전기·가스·기계·화기사용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또 기준에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시에 개수 방법을 지도한다거나 설계단계에서 개수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시설불량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밖에 제반 화재발생원 인조사라든가 보험계약을 위한 건물에 대한 자료조사 및 각종 방재시설, 인원 등의 유지관리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도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텔과 백화점이 다같이 화재의 초기감지를 해야 할 경보시설이 가장 불량하며, 다음으로 호텔의 경우 연소방지 시설이, 백화점의 경우 소화설비가 각각 다소 불량하게 나타난 반면 전기·화공 시설은 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가. 방재시설

(1) 경보설비의 양호율이 호텔은 44.0%, 백화점 37.0%로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기의 정밀성·복잡성 등으로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화재의 초기감지가 곤란함.

(2) 고급내장재, 집기류, 각종 진열상품 등이 자동소화설비의 오동작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작동장치를 수동화하여 초기진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침구류, 카페트, 진열장의 각종 상품 등 가연성 물품을 많이 내장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및 유독성 가스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화재진압도 곤란함.

(4) 각종 배관, 닥트 및 퍼트, 샤프트 등의 방화구획 미비로 화재 시 급속한 연소확대위험이 큼.

(5)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구조의 불량으로 특히 백화점의 경우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에 상품의 적재로 인하여 안전대피의 어려움을 얻고 있음.

나. 방화관리상 문제점

(1) 경영주의 영업우선 관념으로 방화관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2) 각종 부대시설 및 백화점매장의 임대경영주의 방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형태가 서로 달라 방화관리상 통제하기가 곤란함.

(3) 저임금, 낮은 직급, 나쁜 근로여건 등으로 방화관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긍지가 결여됨.

(4) 종합 방재센타가 구조, 위치, 기능면에서 미흡하여 재해발생시 방어 및 통제기능이 마비될 위험성이 큼.

(5) 88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인 조직적인 테러가 우려됨.

(6) 호텔, 백화점 전문관리 용역업체가 없음.

4. 결론

호텔, 백화점의 방재 뿐만 아니라 국가방재적 측면에서 살펴보

면, 소방법 등 안전관계법령과 소방서, 당협회 등 각 단체별로 안전점검 실시, 법적규제 등으로 매년 개선율이 높아져 방재시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회여건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특히 경영주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인 책임감 결여 및 방화관리 종사자들의 소극적인 근무자세 등으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경영주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방화관리 종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보다 좋은 여건하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여기에도 한계성과 제약 조건 등이 따르므로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다 하겠다.

앞으로 몇개월 후로 다가온 88올림픽은 물론 올림픽 이후 쇄도 할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를 육성, 발전시켜 활용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제설비관리의 전문성 및 기밀성, 기술축적, 철저한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방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보험과 여러가지 손해 책임보험 등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